오르고 또 오르고 이젠 '돼지 金겹살'

豚

쇠고기 파동 여파 수요 급증 … 삼겹살 29% ↑

산지 가격도 61% 뛰어 당분간 '고공행진' 지속

올 들어 돼지고기값이 끝없는 오름세를 타고 있다.

특히 나들이 시즌에 따른 계절적 수요증가에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맞물린 대체수요 확대 등이 겹치면서 당분간 돼지고기값이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광주신세계이마트가 내놓은 돼지고기 부위별 가격동향을 보면 1월말 삼겹살(100g·이하 기준 동일) 가격은 1천680원이었으나 2일 현재 2천160원으로 오르면서 무려 28.57% 증가율을 보였다.

목살도 같은 기간동안 1천450원→1천900원(31.03%), 앞다리 890원→970(8.98%), 갈비 1천150원→1천280원(11.3%) 등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광주지역 홈플러스에서도 삼겹살 가격이 이날 현재 1천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1월말의 1천400원보다 39.28% 오른 것이다.

목살은 1천180원→1천700원(44.06%), 앞다리 680원→950원(39.7%), 갈비 880원→1천원(13.6%) 등으로 오름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롯데마트에서도 삼겹살이 1월말에는 1천580원에 팔렸으나, 최근에는 25.3% 오른 1천980원에 거래되고 있다. 목살 1천480원→1천780원(12.7%), 앞다리 980원→1천180원(20.4%), 갈비 1천380원→1천480원(7.24%)으로 올랐다.

농협전남지역본부가 내놓은 자료에서도 삼겹살(500g)은 지난 1월말 6천896원에서 5월30일 현재 9천20원으로 30.8% 뛰었다.

산지 돼지가격 역시 100kg 어른돼지가 같은 기간동안 19만8천원 32만원으로 61.6%, 새끼돼지(1마리)도 7만7천원→8만6천원으로 11.68% 올랐다.

광주신세계이마트 관계자는 "사료비 급등, 양돈농가 감소 등으로 공급이 모자란 상황에서 수요는 광우병 논란 등에 영향받아 최근 20% 증가하고 있다"며 "7~8월은 삼겹살 수요가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장마철에 일시 가격조정이 있을지는 몰라도 당분간 대체로 돼지고기값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전남 투자협약 절반은 '헛물'

최근 5년간 투자협약 374건 중 196건 실현

道 '투자기업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키로

최근 5년간 전남에 투자를 약속한 협약 중 실현된 것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도내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자본을 투자하거나 시설을 신·증·개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담부서를 통해 철저히 지원하기로 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관내에서 체결된 투자협약 374건 중 실제로 자본이 투입돼 약속이 실현된 것은 196건 52.4%에 그쳤다.

이처럼 전남지역의 투자실현율이 낮은 것은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등 투자환경이 변하고 있는데다, 기업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부터 2년간 투자협약 건수가 172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도 투자 실현율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에 따라 투자협약 체결 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투자기업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기업의 투자결정에서부터 실현까지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해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개별 기업별로 전담직원을 1명씩 붙인다.

인·허가 서류를 한 창구에서 통합해 상담하고 접수, 처리하는 복합민원처리계도 신설하고 투자에서 성공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기업활동을 돕기로 했다.

또 '도·시·군 통합 기업관리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투자 기업의 기본정보와 기업상담 결과를 실시간으로 데이터화해 기업들의 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조선,생물,관광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런 기업수요에 대응하는 고객중심의 투자기업 관리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光銀 행장 후보 4명 압축

중앙인사 강상백·송기진, 光銀 출신 박찬진·최영하씨 각축

내일 복수후보 결정 … 26일 주총서 최종 확정

우리금융그룹 산하 은행장 선임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 강상백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송기진 우리은행 부행장, 박찬진 전 광주은행 부행장, 최영하 전 광주은행 상무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이에대해 금융권에서는 청와대의 '입김'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광주은행 노조와 지역 금융계는 광주은행 출신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차기 행장 인선을 둘러싼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광주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는 2일 13명의 지원자 가운데 서류전형을 통과한 7명의 면접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을 정부에 인사검증을 의뢰했다.

이들중 현재 금융권에선 중앙인사인 강상백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송기진 우리은행 부행장 등을 주요 주자로 거론하고 있다. 강 부원장보는 광주일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거친 정통 금융맨으로 꼽힌다.

송 부행장은 벌교상고와 건국대를 졸업했으며, 우리은행 내 중소기업담당 부행장 등을 역임하면서 뛰어난 영업력을 인정받았다. 당초 우리은행장 후보로 거론될 만큼 조직 내 인맥이 탄탄하다는 평가다.

광주은행 전직 임원들의 선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주은행측은 창립 40년이 되는 동안 한 번도 자행 인사가 은행장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행 출신의 선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광주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역민의 정서를 반영해 광주은행 출신 임원이 후임 은행장에 선임돼야 한다"고 밝혀 자행 인사들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 광주은행 출신 인사 가운데 박찬진 전 부행장과 최영하 전 상무 등 2명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과했다.

박 전 부행장은 광주일고와 전남대를 졸업했으며, 광주은행 부행장과 서울영업본부장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영업력을 인정받았다.

최 전 상무는 전남상고와 광주대, 퍼시픽주립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한 뒤 광주은행 기획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은행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해왔다.

한편 행추위는 4일 복수후보를 결정한 뒤 5일 이사회에 넘길 계획이며 행장은 오는 26일께 열릴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기아차 판매량 5월 중 5% ↑

기아차는 지난 5월에 내수 2만 6천452대, 수출 9만 6천422대로 작년 같은달에 비해 대비 5.0% 증가한 12만 2천874대를 판매했다고 2일 밝혔다.

내수는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면서 모닝과 카렌스, 카니발 등 경제성이 뛰어난 차량의 판매가 크게 늘어 작년 같은달에 비해 15.0% 증가했다.

특히 경차 모닝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5월 한달간 7천2대가 팔려 올들어 5월까지 판매량 4만대를 넘어섰고 카렌스는 LPG 차량의 경제성을 인정받아 지난달에만 전년 대비 49.6%가 증가한 3천492대가 판매됐다.

카니발도 레저 시즌을 맞아 1천807대가 팔려 지난해 대비 46.4%의 판매 증가율을 보였다.

5월 수출의 경우 작년 같은달보다 2.6% 늘어났다.

국내 공장 생산분은 6만 5천780대로 11.1% 감소했지만 해외공장 생산분에서 3만642대 팔린 씨드의 호조로 지난해 대비 52.8% 증가한 판매량을 나타냈다.

올해 1~5월 기아차의 판매실적은 내수 12만8천276대, 수출 46만1천545대 등 모두 58만9천82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제모기'로 미끈한 다리를…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회) 7층 필립스 매장은 노출이 많은 여름철에 의상을 센스있게 소화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샤티넬 아이스 제모기를 선보이고 있다. 신제품 출시기념으로 20만9천원짜리를 15만원에 판매한다. 〈롯데광주점 제공〉

대불산단 120억 투자유치

전남도-㈜신텍 투자협약

전남도는 2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조용수 ㈜신텍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오염물질 저감용 첨단 세라믹 필터 제조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경남 창원에 소재한 ㈜신텍은 산업용 발전설비와 첨단 환경, 해양플랜트 전문 업체로 오는 10월부터 대불자유무역지역에 120억원을 투자해 관련 세라믹 필터 생산시설을 세울 예정이다.

첨단 세라믹 필터는 대기 배출물이나 공정가스 중의 매연과 질소 산화물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신기술로 제조공장이 가동되면 235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750억원의 매출이 기대된다.

㈜신텍은 작년 6월에도 신안조선타운의 약 10만평 부지에 500억원을 투자해 산업용 발전설비와 조선플랜트 생산공장을 건립키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었다.

한편 전남도는 2012년까지 대불산단 주변에 850억원을 투자해 환경기술종합지원센터와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환경산업 멀티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약 100개 환경기술업체가 입주해 3천여명의 기술인력이 유입돼 이 지역이 새로운 환경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